

순천정원박람회 관람객 800만 돌파



폐막을 20여 일 앞두고 목표 800만 입장객을 달성한 지난 7일 오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찾은 800만 번째 관람객들이 노관규(맨 왼쪽) 순천시시장으로부터 정원 평생 무료 입장권 등 선물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가며 관람객 800만명을 돌파했다.

순천시민(28만명)의 30배에 달하는 관람객이 순천만 정원을 찾은 것이다. 기후위기 속에 순천이 지켜낸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도시 경관이 갈수록 삭막해지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세계 최대 정원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9일 오전 기준 815만33명의 관람객이 정원박람회를 찾았다.

개막 190일이 지난 7일 오후에는 800만 번째 관람객을 맞았다. 정원박람회는 폐막을 20여 일 앞두고 애초 세웠던 800만 관람객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

지난 4월1일 문을 연 정원박람회는 12일 만에 100만 관람객을 넘기며 흥행을 예고했다.

황금연휴를 맞은 추석 명절(9월28일-10월3일)에는 100만 구름 관람객을 모으기도 했다. 연

폐막 20여일 앞두고 목표 달성 추석 연휴에는 100만 구름 관객 국화·코스모스 등 가을꽃 단장

휴였던 지난 30일에는 역대 최대 일일 관람객인 21만5828명을 기록했다. 추석 연휴 기간 정원박람회를 포함한 순천 주요 관광지를 다녀간 관람객은 112만명에 달했다. 이 기간 박람회 입장권 판매 등 자체 매출액은 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초 박람회 누적 매출액은 305억원으로, 이는 목표의 120%에 달하는 규모다.

박람회 성공 덕분에 올해 순천을 찾은 관광객 수는 104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5만명)보다 177% 증가했다. 정원박람회는 올해 역대급 무더위에도 봄, 여름, 가을 계절마다 새로운 경관을 선보이며 '비수기 없는' 여행지를 만들었다.

여름에는 시크릿가든의 인기 명소인 방화정원과 개울길 광장에서 더욱더 지친 관람객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했다. 가을을 맞아서는 억만 송이 국화와 코스모스, 샬비어, 마리골드 등 43만 그루의 가을꽃을 심어 화려함을 더했다.

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인접한

6만평(19만8347㎡) 규모 오천그린광장과 그리나일랜드를 무료로 개방해 맨발로 잔디밭을 걷는 즐거움도 선사했다. 정원박람회에는 전국 자치단체와 국내외 다양한 단체·기관·기업 등이 찾아 '생태 도시 순천'의 변화상을 목격하고 있다.

지난 6월 노관규 시장은 프랑스에서 열린 '2회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에 참석하며 정원 도시의 가능성을 알렸다.

지난달부터는 정원박람회장 곳곳에서 '국제원예생산지협회(AIPH) 정기 총회와 '17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 행사, '힐링 웰니스 문화제' 등 국내외 행사를 열어 생태도시의 성공을 논했다. 오는 11일에는 '남도영화제 시즌1' 개막식이 오천그린광장에서 열린다.

노 시장은 "800만 관람객을 맞이하게 돼 감격스럽다. 전 국민이 보내준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이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정원박람회 흥행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이뤄진 게 아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인정할 만큼의 높은 수준을 보일 수 있게 애써준 순천시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람회 조직위는 800만 관람객 돌파를 기록한 지난 7일 오후 800만 번째 손님인 광주 20대 연인에게 순천만국가정원 평생 무료입장권 등을 주며 목표 달성을 축하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안세영 "목표는 파리 올림픽 금"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 단식 불굴의 부상 투혼으로 금메달

무릎 부상에도 굴하지 않는 투혼으로 정상에 오른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이 지역민에게 진한 감동을 주고 있다. <관련기사 2·22면> 안세영(21)은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단식전에 이어 7일 여자단식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며, '셔틀콕 천재'에서 '셔틀콕 여제'로 거듭났다.

특히 안세영은 여자단식 결승 1게임에서 무릎 부상을 입은 탓에, 통증으로 좌우 움직임과 신속한 동작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포기하지 않아 감동을 받았다.

안방에서 TV를 시청하던 지역민과 팬들은 젊은 안세영이 아직 기회가 많은 만큼 큰 부상에 대비해 차라리 기권했으면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 그로써 간절히 원했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위해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교차하며 뜨거운 응원을 보냈다.

안세영이 이번엔 2관왕에 등극하며 한국 배드민턴 역사를 새롭게 쓴 것은, 본인의 천재성과 남다른 노력,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근성과 체력 덕분이다.

나주시 이창동이 고향인 안세영은 아버지(안정현 나주체육회 사무국장)를 따라갔던 배드민턴 동호인 클럽에서 라켓을 잡았다. 아버지는 배드민턴에 소질을 보이지 않자 나주 중앙초교 1학년 때 광주 풍암초로 전학시켰다. 배드민턴 스타 이용대의 스승인 최영호 감독에게 본격적으로 배드민턴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2017년 광주제중 3학년 때 선발전을 통과해 2018년부터 성인 대표팀에서 뛰었다.

2018년 3월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341위를 기록했던 안세영은 이듬해 랭킹 99위로 뛰어올랐다. 2020년 1월에는 다시 90대계를 건너 뛰고 랭킹 9위에 올랐다. 안세영은 제66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경기부문 여자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세영은 광주제고를 졸업한 뒤 학업을 접고 실업팀 삼성생명체에 입단했다. 목표로 삼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정상에 서기 위한 선택이었다.

안세영의 체력은 부친에게 물려 받았다. 아버지 안정형씨는 1990년대 아마추어 복싱 선수였으며, 19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했지만 메달을 따지는 못했다.

아버지 안씨는 이 때문인지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영이가 금메달을 딴 것은, 아버지가 못 이룬 금메달 한을 29년 만에 풀어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는 "나도 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자식은 운동을 시키지 않으려 했다. 내가 배드민턴 동호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배드민턴 라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이 시상대에 오르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켓과 접하게 됐다. 저녁에 동호인 활동을 했는데, 엘리트선수 출신 코치가 세영이 운동을 시켜도 되겠다고 해서, 배드민턴을 시작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안세영의 남동생도 삼성생명 배드민턴 선수다.

안씨는 딸이 셔틀콕 천재로 불리는 것과 관련해 "천재라기보다는 노력형"이라고 강조했다. "세영이는 지독한 '연습벌레'라고 말하는 안씨는 "(세영이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고민했으나 꿈을 위해 운동에 전념하려고 실업팀으로 입단했다"고 말했다.

결승전 현장에 있었던 그는 이번 경기는 세영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정말 힘든 순간이었다고 전했다. 안씨는 "세영이 엄마가 무릎을 부여잡고 코트에 주저앉은 딸을 향해 '그만해 기권해도 돼'라고 소리쳤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다"며 "딸이 아파하는데 마냥 마음 편히 응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응원을 안 할 수도 없어서 불편한 마음으로 경기를 봤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이번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목표로 근접하고 있다"며 "내년 파리올림픽과 두바이에서 열리는 아시안선수권에서도 정상에 올라, 배드민턴 그랜드슬램을 완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바이탈뷰티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